



남아시아의 개발수요와 한국의 분야별 ODA 추진방안

조충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cjcho@kiep.go.kr

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jchoi@kiep.go.kr

송영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ycsong@kiep.go.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개발협력 수요가 가장 큰 지역 중 하나로, 한국의 개발협력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남아시아는 2011년 기준 세계인구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DP가 1,402달러에 불과하여,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임.
- 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협력 수요증가와 함께 원조지원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최근에는 전 세계에서 對남아시아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6년 10.9%에서 2010년 15.8%까지 증가하는 추세임.
 - 2000년대 이후 남아시아 경제는 동남아시아를 추월할 만큼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치적 안정성도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對남아시아 ODA 비중을 늘려가는 한편, 효과적인 개발원조정책 추진에 주력하고 있음.
 - 남아시아는 2010년 기준 KOICA 무상원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은 수원규모 상위 20개국 안에 드는 중요한 원조 대상지역임.
 - 우리 정부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계기로 원조국가의 실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하에서 ODA를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아시아 국별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중점협력분야를 도출하고, 분야별 원조환경을 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對남아시아 ODA 추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을 연구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정량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중점협력 대상 분야를 선정하였음.
 - 4개국 9개 분야별 개발협력 수요와 우리나라의 공여능력을 정량화하기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 세계식량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공식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를 우선지원, 차순위지원, 잠재지원, 지원유보 분야로 각각 구분, 도출하였음.
-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각 중점협력 분야별로 원조국의 현황,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해당 분야 원조 동향 등을 검토하고, 각 분야별 한국형 ODA 모델¹⁾의 적용가능성을 살펴본 다음, 적합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추진 사례를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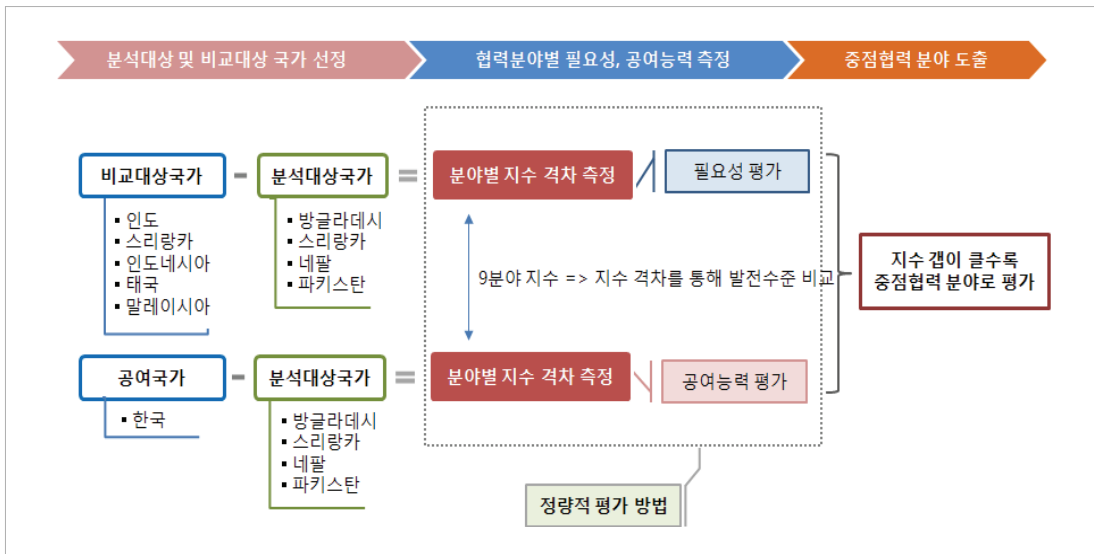
1) 우리나라 각 분야 발전경험과 ODA 지원경험을 통해 가장 공여능력이 높은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8월 국무총리실 주도로 수립됨. 경제일반, 국토건설, 산업/에너지, 교육, 보건 등 총 12개 분야, 147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국가별 중점개발협력 분야 도출

- 협력분야의 우선순위는 수원국의 필요성과 공여국의 공여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다음, 두 부문이 모두 높게 평가될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중점협력분야로 선정
 - 필요성 측정은 ODA 수원국인 분석대상국가와 비교대상국 간, 공여능력 측정은 공여국가인 한국과 분석대상 국가 간의 협력가능분야별 지수 격차를 측정하여, 격차가 클수록 각각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큰 것으로 간주하였음.

[그림 1] 중점협력 국가 및 분야 도출을 위한 분석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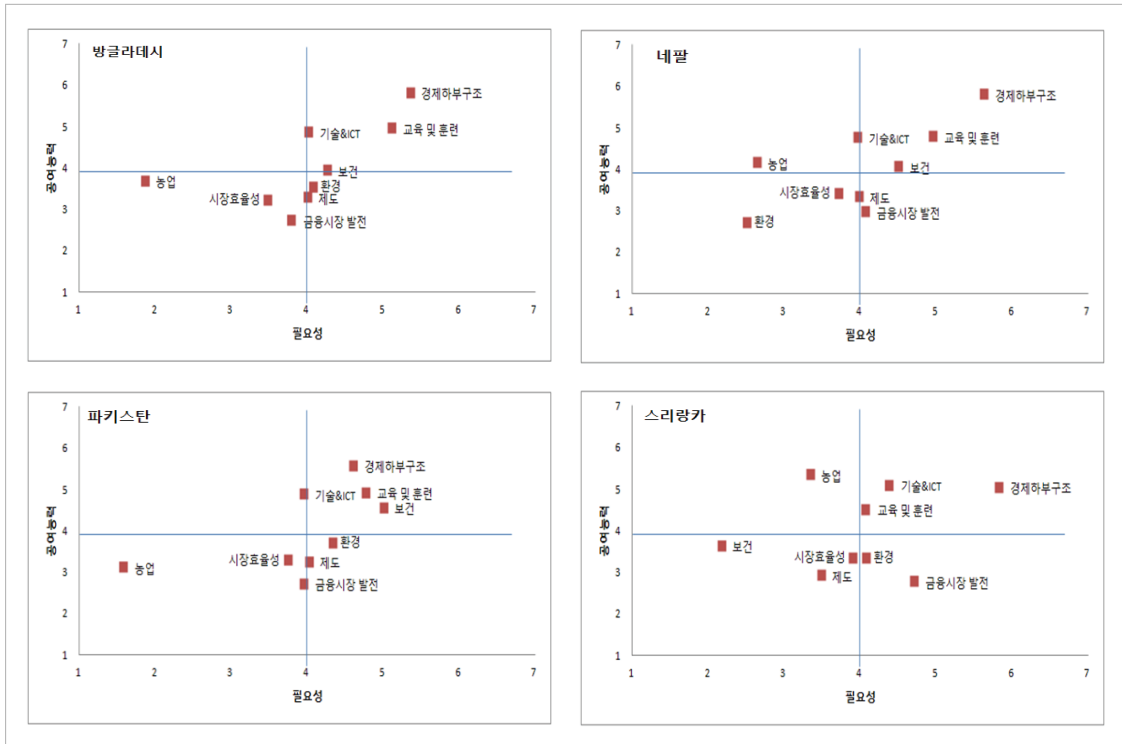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세계경제포럼이 제공하는 소득수준 및 발전단계 등을 고려하여 분석대상국가의 비교대상국을 선정하고, 두 집단 간의 격차를 측정하여 필요성 및 공여능력을 도출
 - 분석대상국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를, 소득 및 발전단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스리랑카는 태국, 말레이시아를 비교대상국가로 선정하여 필요성을 측정
 - 중점협력분야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분야별 지수 △세계경제포럼의 환경성과지수(EPI) △FAO의 농업부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도, 보건, 경제하부구조, 시장효율성, 금융시장발전, 교육 및 훈련, 기술 및 ICT, 환경, 농업 등 총 9개 협력가능 분야를 선정

-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높은 분야를 우선지원(1순위), 필요성은 높지만 공여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를 차순위지원(2순위),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공여능력이 큰 분야를 잠재지원(3순위), 필요성과 공여능력이 모두 낮은 분야를 지원유보분야로 규정하여, 국가별 분야별 중점협력분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음.

[그림 2] 국가별 중점협력분야 도출 결과



자료: 저자 작성.

2) 우선지원 분야별 원조환경 분석

(1) 분야별 현황 및 특성

- **[경제하부구조]** 4개국 정부가 모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파키스탄의 경우, 교통인프라 및 전력 부문 개발은 남아시아 국가 중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특히 교통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국가무역회랑(NTC: National Trade Corridor) 이니셔티브’를 마련하

- 는 등 정부의 개발의지도 높음. 그러나 투자의 폐쇄성으로 신속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방글라데시의 발전수준은 파키스탄 다음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력생산의 90%를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편중현상이 심함. 특히 강이 많은 지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항만, 내륙수상 교통 및 컨테이너 시설 등의 개발이 필요함.
- 스리랑카는 섬나라의 특성상 남아시아 국가 중 항만이 가장 발달되어 있고, 도로도 국토의 70%를 커버할 만큼 발전수준이 높음. 전산화 등을 통하여 기존에 구축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네팔은 산간지형이 많아 교통인프라가 특히 취약하여 정부가 도로 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으로 외국 ODA 의존도가 60% 이상임. 또한 수력을 통한 전력생산이 99.6%에 달해 수자원 관리가 중요한 개발과제임.

● **[기술 및 ICT]** 4개국 모두 국가전산화를 추진하여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으나, 투자가 부족하여 전반적인 개발 수준이 낮음.

- 파키스탄은 정부의 이동통신 활성화 정책 및 동 분야 외국기업 투자 확대로 이동통신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하는 등 조만간 보급률 100%를 달성할 전망이다, 인터넷 서비스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방글라데시도 이동통신 가입자가 연평균 20%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인터넷 시장은 초기 단계임. 하지만 정부가 ICT 주도의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빠른 속도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음.
- 스리랑카는 이동통신 보급률이 높고 ICT 장비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이 높아, 새로운 통신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도 스리랑카 경제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e-Sri Lanka 로드맵’을 마련할 정도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음.
- 네팔은 산악지형의 한계로 유선시장이 미개발된 반면, 이동통신 및 인터넷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체 투자 역량이 낮음.

● **[교육 및 훈련]** 남아시아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높지 않으나, 스리랑카와 네팔의 경우, 정부가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식자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파키스탄 15세~24세 인구의 식자율은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낮는데, 남자의 식자율도 68.6%에 불과하나, 여자는 40.3%로 매우 낮음. 초등교육 입학률은 95%지만, 중등교육 진학률은 35%밖에 되지 않는 등 상급교육으로 갈수록 교육과정 이수 학생이 현저히 줄어듦.
- 방글라데시는 중등교육 입학률이 51%이고,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여학생 입학률이 오히려 남학생 입학률을 추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식자율도 15~24세 인구 전체는 77%인데, 여자가 78.5%로 남자의 75.5%보다 높음.

- 스리랑카는 초등 및 중등교육 입학률이 각각 98.7%와 104.9%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수율도 높음. 정부 지출 중에서 교육부문 지출의 비중도 8.1%로 높음. 이에 따라 15세~24세 인구의 식자율도 98%에 달하는 등 전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음.
- 네팔은 정부 전체 지출 중 교육부문에 20.2%를 할당하는 등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그 결과 15~24세 인구의 식자율은 83.1%로 남아시아 평균보다도 높음.

(2)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 이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원조는 세계은행, ADB 등을 중심으로 경제하부구조, 교육,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기술 및 ICT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하부구조]** 남아시아 주요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프라 구축인바, 이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중 많은 부분이 경제하부구조 부문에 할당되어 있음.
 - 동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은 200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에 대한 인프라 지원은 2006년~10년 연평균 34.4%, 32.1%, 31.5%의 증가율을 기록
 - 최근 국제사회의 對파키스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항만, 수로, 도로 건설에 집중되어 있고, 방글라데시에서는 낙후지역 인프라 개발, 지역 간 인프라 연결성 확대 등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네팔도 세계은행 자금으로 낙후지역 도로개발 사업을 확대 추진 중임.
- **[기술 및 ICT]** 비중과 규모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하여 국제사회의 지원이 매우 낮은 수준임.
 - 규모와 비중적인 측면에서 볼 때, 2010년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전체 ODA 대비 ICT 분야의 비중이 0.1%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금액 역시 100만 달러 선에 머물러 있음.
 - 최근 5년 국가별 ICT 분야 ODA 평균 규모는 방글라데시가 약 2,600만 달러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스리랑카 290만 달러, 네팔 140만 달러, 파키스탄 80만 달러 순으로 이어졌음.
 - 하지만 남아시아 정부들이 ICT를 통한 국가발전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최근 세계은행 등 국제원조기관들도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서 ICT 개발을 통해 해당 및 연관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정부와 민간의 ICT 활용도 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교육 및 훈련]** 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분야 ODA 규모는 기술 및 ICT 분야보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프라 분야에 비하면 지원 규모가 적고 매년 변동 폭도 큼.

- 2010년을 기준으로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ODA 대비 교육 분야의 ODA가 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개년(2006~10년) 연평균증가율은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가 각각 -1.0%, -4.9%, 18.6%, 1.2%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교육분야 ODA는 꾸준히 증가 또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급격히 등락을 거듭하는 일정치 않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동 분야 ODA 지원 규모가 큰 파키스탄의 경우 2007년 4억 7,000만 달러, 2008년 2억 1,000만 달러, 2009년 12억 달러, 2010년 4억 8,000만 달러가 지원되었음. 이처럼 불규칙적인 지원 추세는 기타 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남.
-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남아시아 주요국의 교육부문에 대한 세계은행, ADB 등의 지원은 대체로 초등교육, 또는 직업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세부적으로는 초등교육 입학률과 이수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또한 지역별·성별 교육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있음.
 - 일부 사업들은 해당 국가의 교육개혁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원조를 지속하고 있음. 지원 기간은 짧게는 1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4~5년 정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3)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

- **[경제하부구조]** 한국 ODA의 5개 핵심분야 중 하나로, 한국의 對남아시아 ODA는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이 이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방글라데시의 경우 한국의 ODA 규모 자체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인프라 분야 ODA 규모는 2006년 이후 연평균 지원액 8,000만 달러, 증가율이 37.4%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반면 나머지 3개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분야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스리랑카에 대한 경제인프라 지원 규모는 2007~08년간 쓰나미 피해복구사업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높게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20만 달러에 그쳤고,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각각 2008년과 2007년에만 4,000만 달러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 **[기술 및 ICT]** 우리나라의 지원규모는 미미하지만 향후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고려해보아야 할 분야임.
 - 기술 및 ICT 분야의 경우, 2008년 한국이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에 각각 4,600만 달러, 730만 달러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원규모가 모두 100만 달러 이하로 집행되었음.
 - 가장 많이 지원된 방글라데시도 5년간 총 5,000만 달러밖에 지원이 되지 않았을 정도로 절대적인 지원 규모가 작은 편임.
 - 각국별 ODA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봐도, 기술 및 ICT는 2010년 기준으로 모두 3%대 이하에 그쳐, 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기술 및 ICT 분야가 원조사업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ICT는 남아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분야로, 우리나라는 이미 2008~09년 남아시아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많은 효과를 거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지원규모를 크게 확대할 여지가 큰 것으로 판단됨.

● **[교육 및 훈련]** 우리나라 ODA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는 매우 적으나, 대부분 무상원조 자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방글라데시 교육 및 훈련 분야 사업은 2007~09년 이루어진 국가 직업훈련 및 공무원 역량강화 두 건의 사업에 전체 ODA의 51.8%가 지원되었고, 최근에도 e-Learning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이미 교육부문 발전 수준이 높은 스리랑카에 대한 지원은 미개발지역 교육기관 설립과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져, 2009년을 제외하면 스리랑카 교육분야 ODA 비중은 전체의 10%를 넘지 못했음. 반면 네팔과 파키스탄의 경우 2010년 총 ODA 중 교육분야 ODA가 각각 68.7%, 45.7%의 비중을 차지하였음.

3. 정책 제언

1)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1) 남아시아 특성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 세계 최대 빈곤지역으로 개발협력 집중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가 전세계 최빈국 49개국 중 33개국을 포함하고 있는 세계 최대 최빈국 지역이라면, 남아시아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준의 1인당 GDP인 약 1,400 달러 인구가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보다 두 배나 많은 16.5억 명이 존재하는 세계 최대 빈곤인구 밀집지역임.
- 그동안 우리나라의 ODA는 중저소득국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최빈국 지원 비중을 늘려나가야 할 것임.

● 남아시아 성장잠재력과 인접 고성장 국가를 활용하는 개발협력

- 2000년대 들어 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05년 골드만삭스는 BRICs를 이을 차세대 신흥국가인 ‘넥스트11’에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포함시킴.

- 특히 남아시아는 다른 최빈국들과 달리 역내 고성장 국가인 인도는 물론 중국, 아세안 등 다른 고성장 국가 및 지역과 인접하고 있어, 이들의 고성장과 연계한 개발협력을 전개할 경우, 높은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남아시아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

- 같은 남아시아 국가이지만 1인당 GDP가 3,000달러에 육박하는 스리랑카와 약 600달러에 불과한 네팔 등 소득격차가 크고, 산업의 발전단계는 물론 내륙국의 문제 등 발전 장애요소도 각각 달라 국가별 맞춤형 개발협력을 전개해야 할 것임.

(2) 원조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개발협력

●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및 규모의 경제화 추구

- 원조 및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조에 대한 평가를 통해 부족한 역량을 우선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함. 대남아시아 기존 원조사업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원조의 적절성, 효과성, 영향력에 비해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어, 이들 부문에 대한 역량강화가 우선 필요함.
-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고, 1991~2010년 대남아시아 유상원조 및 무상 프로젝트 원조 평균 지원규모가 각각 약 2,400만 달러와 170만 달러로 소규모 원조사업이 지나치게 많아 사업 중복, 행정적 비효율성 발생의 여지가 큰 점을 개선해야 할 것임.

● 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연계 및 프로그램화 강화

- 유무상 원조가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2011년부터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까지 본격 추진되고 있어 분절화의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협력 사업 간의 연계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원조사업도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원조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프로젝트 형태의 지원을 지양하고, 수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개별 사업을 패키지로화하는 원조의 프로그램화를 추구해나가야 할 것임.

● 수원국 주인의식 및 국제사회와의 원조 조화 강화

- 남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소득수준은 낮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제와 시장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원조에 대한 주인의식도 강해 수원국의 사업추진 시스템, 입찰제도, 절차 및 과정 등과의 조화는 물론 다른 원조 공여기관 및 국가와의 조화가 필요함.

(3)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 구축

- 남아시아 국가 중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4개국이 이미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 대상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남아시아 원조협의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임. 반면 동남아, 아프리카, 심지어 아시아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협의체도 구축되어 가동 중임.
- 이를 통해 남아시아 소지역 개발협력 프로그램인 SASEC(South Asia Sub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참여는 물론, 우리나라의 원조를 받지 않는 인도와 다른 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 공조, 규모의 경제화, 효율성 제고, 민간참여 촉진 및 시행착오 축소 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2)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방안

(1) 국가별 분야별 중점협력 프로그램

- 정량분석을 통해 선정된 국별 중점협력 분야와 분야별 원조환경, 대남아시아 ODA 추진방향,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우선 적용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 방글라데시의 중점협력 분야 중 경제하부구조의 경우, 한국형 ODA 모델 중 경제일반 부문 20개, 국토건설 부문 19개, 산업/에너지 부문 12개 프로그램 각각을 방글라데시의 개발특성과 원조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산업단지 개발, 경공업 육성지원, 전력인프라 프로그램이 우선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기술 및 ICT 분야와 교육 및 훈련 분야에는 각각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등이 우선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나타남. 나머지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의 중점협력 분야 우선 적용 가능 프로그램도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표 1] 남아시아 국가별 중점협력 분야 및 우선 적용가능 프로그램

국가	중점협력 분야	우선적용 가능 프로그램
파키스탄	경제하부구조	전력인프라 구축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녹색산업 육성 지원
	교육훈련	기능인력 양성 숙련기술 장려 및 육성
	보건	지역거점 공공병원 현대화

[표 1]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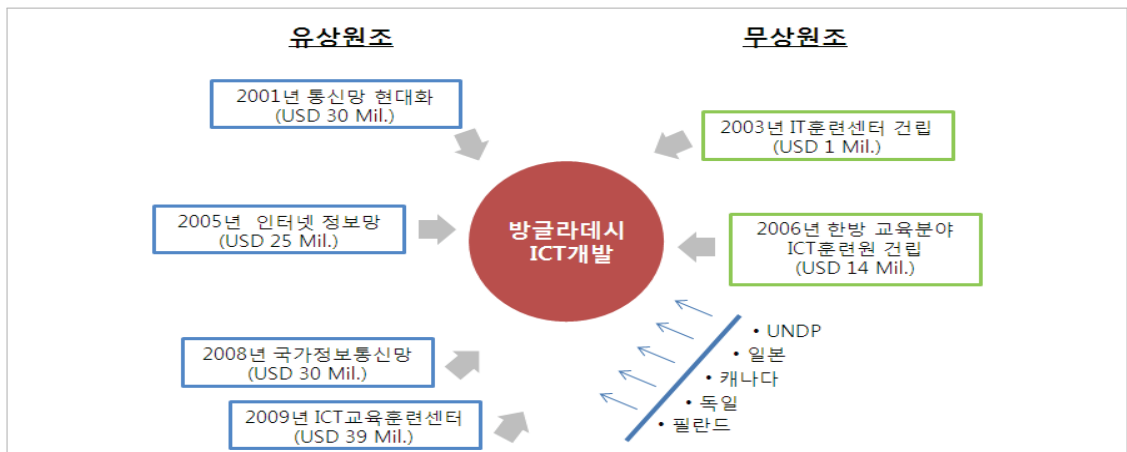
국가	중점협력 분야	우선적용 가능 프로그램
방글라데시	경제하부구조	전력인프라 구축 경공업 육성 지원 산업단지 개발
	기술/ICT	유무선 브로드밴드 구축 국가기간 전산망 구축
	교육훈련	기능인력 양성
스리랑카	경제하부구조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도시 정책 녹색산업 육성
	기술/ICT	폐기물처리 및 관리 녹색 R&D 기반 구축
	교육훈련	기능인력 양성
네팔	경제하부구조	다목적댐 개발 공항인프라 구축 역사문화도시 조성 계획
	교육훈련	기능인력 양성
	보건	응급의료체제 구축

자료: 한국형 ODA 모델 등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방글라데시 ICT 개발사업 사례

- 방글라데시 ICT 개발부문에 우리나라는 2012년까지 4건의 유상원조와 2건의 무상원조 사업을 각각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거나 완료하였으며, 추진내용 및 방식은 [그림 1]과 같음.

[그림 1]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ICT 개발협력 기존 추진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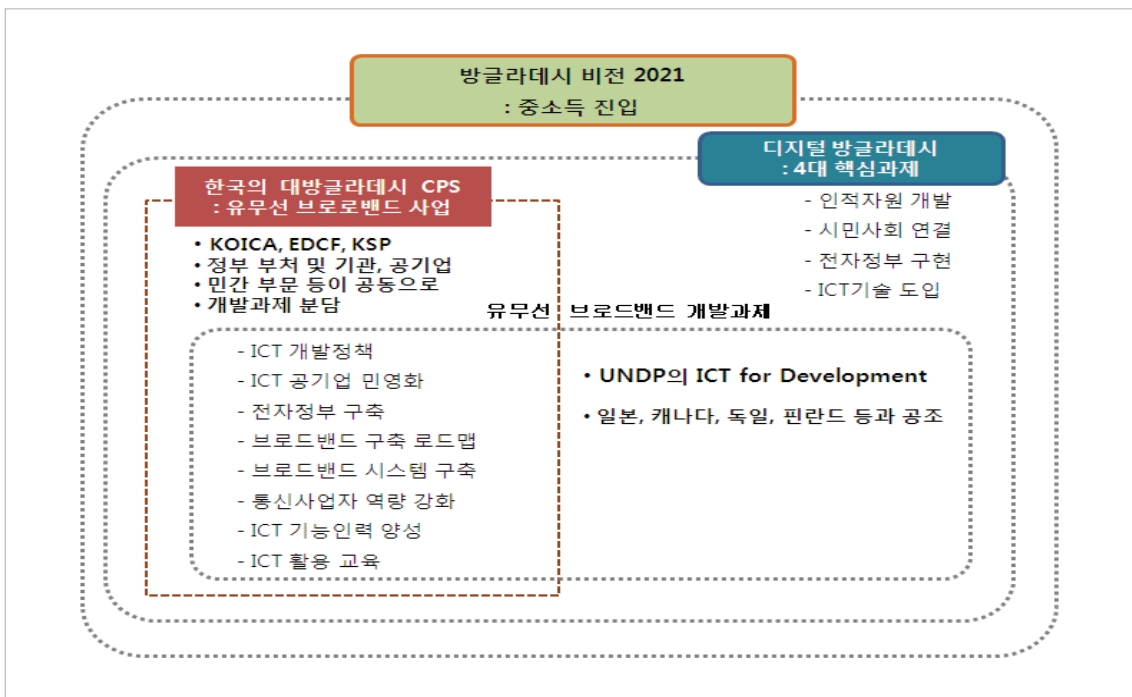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 다음은 방글라데시 ICT분야에서 우선 적용 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유무선 broadband 구축사업을 선정, 기존의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추진 방식임.

- 프로그램형 접근법으로, 방글라데시의 ICT 개발계획 및 프로그램, 즉 ‘방글라데시 비전 2021’ 및 ‘디지털 방글라데시’ 차원에서 사업을 설계
- 양국간 원조 협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원조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유무선 원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물론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민간 부문 등의 자금, 기술 및 관련 지원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통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 원조에서 나아가 개발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충분하고 세심한 사전 조사와 함께 가장 합리적으로 각각의 ICT 개발과제를 분담하는 한편, 방글라데시 ICT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관과의 공조도 적극 도모하는 방식으로 추진

[그림 2] 새로운 한국의 대방글라데시 ICT 개발협력 추진방식안



자료: 저자 작성.